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8월 16일(주일) 제1307호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이 허리높이까지 차오른 토사를 치우고 있다.

온누리교회 수해복구 긴급구호

충주 강현마을 수해피해 가옥 한 채 긴급복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차 긴급구호팀 파견

온누리교회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에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NGO 더멋진세상과 대학청년부 청년들로 구성된 1차 온누리교회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은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 최영성(78세) 어르신 댁을 긴급복구했다. 산사태로 쏠려 내려온 엄청난 토사를 치우고 각종 쓰레기를 제거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은 지난 8월 2일 최대 300mm 폭우가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강현마을 주민 65세대 전원이 피해를 입었을 만큼 심각했다. 한때 엄정면 일대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온누리교회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은 중장비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어르신들 자력으로 도저히 토사를 치울 수 없는 두 가정을 선정해서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수해복구 긴급

구호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을 이끈 최대홍 목사(여호수아공동체)는 “많은 것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긴급복구 활동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강현마을 최영성 어르신은 “혼자서는 토사를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청년들 덕분에 큰 짐을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최진혁 실장은 “2차 수해복구 긴급구호 활동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누리교회 2차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파견된다. 2차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은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 정기순 어르신 댁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제거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배 회복 프로젝트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5:16, 야모스 9:11~12)

새벽기도회 8월 17~21일 오전 5시 20분, 6시 30분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행 15:16, 암 9:11).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새벽기도회 ‘다윗의 장막’이 8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오전 5시 20분과 6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설

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다윗의 장막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별도의 예배당 예배 예약 절차 없이 교회에 오면 된다. 본당에 입장해서 좌석QR코드를 스캔하고 착석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새벽기도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미션 커넥트

(Mission Connect)

선교사·선교사 자녀와 소통하는 비대면 여름선교

대학청년부가 8월 말까지 현지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MK)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비대면 여름선교사역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를 실시한다. 미션 커넥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여름 아웃리치를 대신해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들과 소통하고 섬기는 사역이다.

미션 커넥트에는 선교사들과 온라

인으로 소통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블레싱 커넥트(Blessing Connect)’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한글, 한국사 등을 온라인으로 가르쳐주는 ‘튜터링 커넥트(Tutoring Connect)’가 있다.

대학청년부 미션 커넥트는 공동체 별로 실시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정규예배 외 대면 모임 제한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의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등이 제한된다. 온누리교회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규예배 외에 새가족모임 등의 행사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기독교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에는 내 삶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메타네러티브를 근거로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한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헌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창조-타락-구속-완성’의 4단계로 설명한다.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타락’ 사건이 일어난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와 그분을 통한 구원계획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21~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속의 완성 이야기를 전한다.

각 세계관들의 메타네러티브들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 어떤 다른 대답을 하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각각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각 세계관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인생을 허비한다. 자신이 너무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마저 부인한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것이다.

둘째,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우리의 삶은 문제가 가득한 삶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러나 BC/AD 사이에 그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예수님 이전의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성경의 메타네러티브는 말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의 타락에 있다. 또한 나와 마주하는 상대방의 타락에 있고, 우리가 사는 환경의 타락에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선악과 사건의 결과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그 중심에 나의 죄가 있다.

셋째,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나의 죄에 있다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대속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가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마땅하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은 나의 타락, 상대의 타락, 환경의 타락 등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상대방이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다.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이다. 이 질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궁극적 질문이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있다. 각 세계관은 이들 질문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현재를 살 것을 권유한다. 또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죽음 후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곳은 완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완벽하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임을 믿는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졌다면, 현 세상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즉 복음만이 그 답이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한다.

묵상: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 메타네러티브에 대입해 묵상해보자?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다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은 퍼져야 산다는 말이 있다. 스카이다이버들이 고공에서 낙하산이 퍼져야 살 수 있는 것이 기본 상식이듯, 전도자의 얼굴도 활짝 퍼져야 자신이 살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벧전 3:15)라고 말씀한다.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한 대답을 해야겠지만 묻지도 않는데 대답을 한다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데도 얼굴이 밝고 빛나면 그들은 “지금 당신 형편이 딱딱한 줄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얼굴이 밝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온다. 그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얼굴이 어떤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인 이유다.

마음은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목소리나 눈빛, 얼굴 표정을 통해 보인다. 특히 얼굴 표정은 감정을 드러내는 단서다. 아무리 마스크를 끼

고 비밀로 하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술한 고생 끝에 금광을 발견한 광부 그리고 지금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이웃이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노다지를 캐거나,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안다.

나는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곧잘 말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안색이 일그러지곤 한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부터는 얼굴 표정을 바꾼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통과~’ 하면서 이해하고 용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집 앞 공원을 돌 때마다 나는 먼저 인사를 한다. 얼굴이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인사는 환영의 메시지이고, 존경의 표시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접착점이 된다.

작년에 우리 며느리의 할머니께서 중남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수성가하신 분이래 자기주장이 강하셔서 누구 말도 듣지 않으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

다고 했다. 나는 대전으로 병문안을 갔다. 사장어르신은 반갑게 맞아주셨으나 “날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셨다. 몸이 약하신데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하면서 준비해 간 봉투를 내밀었다. 어르신은 “나는 늙어도 돈은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품에 봉투를 넣으셨다. 나는 다 음에 들르겠다고 하면서 물러났다. 며칠 후 언제 오겠느냐는 소식이 왔다. 곧장 달려갔더니 내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만나 싶어 며칠을 고민했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당신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내 얼굴을 보니 복이 덕지덕지 붙었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다. “제가 얼굴에 복이 많은 것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래요”

그 어르신은 순한 양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한 달 후 돌아가셨다. 내 얼굴이 전도지임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삼척동자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

도 안에 새사람인 우리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정말 잘난 사람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얼굴은 밝고 마음은 당당하되 태도가 겸손하면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상냥한 표정과 몸짓, 친절한 말로 응대하는 고통 받는 감정노동자들이 많다. 그들에게도 금광을 발견한 사람처럼, 사랑에 빠진 자처럼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도록 복음을 전하자. 내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 공동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누가복음 4:14~2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과 소명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상황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영향이 있더라도 소명을 깨닫고, 소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상황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조절기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온도계는 현재 공간의 온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온도조절기는 온도를 바꿈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은 온도계처럼 현재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온도조절기 같은 인생은 소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고,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소명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분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소명이 상황을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나사렛 회당은 예수께서 자란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신흥도시입니다. 많은 건축이 일어나는 나사렛에 살아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께서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더불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16절).

‘늘 하시던 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여 년 동안 회당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성과 내면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당이라 보기 어렵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을 존중하셨고, 소중히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성경은 큰 종으로 돌돌 말은 두루마리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읽으려면 펼쳐야 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7명이 성경 읽는 것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읽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읽고, 그 다음에 5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자원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17~19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어 줄 제왕 같은 지도자를 메시아로 꿈꿨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에서 일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사야의 말씀과 동떨어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소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난입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인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놓을 수 있는 가난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함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까닭은 자기 의, 자기만족이 가득한 부유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 됨과 부정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부정함, 더러움, 추함과 죄악 됨을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 당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부자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부를 물려받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젊고, 경건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말씀도 지켰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하신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부정한 삶을 회개하고, 되갚고, 변화된 삶을 고백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이미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둘째,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케 합니다. 셋째, 못 보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28절에 나오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시스(ἀφεσις)로 같기 때문입니다. 포로 된 자, 억눌린 자 사이에 못 보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포로 됨과 억눌림도 보지 못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방향 감각을 방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죄로 초로되고, 죄에 억눌리고, 죄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다시 보게 하고, 포로 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명의 핵심 단어는 ‘자유(해방)’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와 해방으로 쓰인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용서’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는 말씀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야만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빛을 탕감하다. 빛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눅 11:4).

‘빛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빛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향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의 용례들이 한꺼번에 사용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율법에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레 25:10).

‘희년(Jubilee)’은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 해인 50년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중요한 일이 시행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됩니다. 경제적으로 빛진 사람들이 탕감됩니다. 어떤 토지거래가 있었다라도 원 소유주에게로 반환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희년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과 야망을 생각한다면 희년이라는 불가능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 있습니다. 희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보여 주시는 제도입니다. (14면에 계속)

수해복구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 대학청년부

“십 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소...”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 어르신들에게 되찾아 준 미소

지난 8월 2일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아니 퍼부었다. 고즈넉한 산골마을이 삽시간에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뒤덮였다. 허리 굽은 어르신들은 키만큼이나 쌓인 토사를 치울 엄두도 못 내고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바로 그 때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과 대학청년부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이 찾아왔다. 2박3일 동안 토사와의 사투 끝에 수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 드릴 수 있었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내 생전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건 처음 봤소”

김영석 어르신은 폭우가 쏟아진지 벌써 열흘 넘게 지났는데도 그날 밤 기억이 또렷하다. 8월 2일 낮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그런데 어둑해지면서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다. 최영성(78세), 김영석(76세) 어르신 부부는 큰일이야 있겠거니 하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자 장대비가 폭우로 바뀌었다. 빗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최영성, 김영석 어르신 부부의 잠을 깨울 정도였다. 걱정스런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산에서 쓸려내려 온 토사가 무릎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다. 토사가 낮게는 80cm, 높게는 1m 이상 쌓여있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아산에는 산사태가 남긴 깊고 짙은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언제 또 토사가 쏟아질지 몰라 무섭기까지 했다.

“산에 굽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자잘한 나무들만 있으니까 땅이 견디지 못한 거야. 토사가 수로를 따라서 내려오다 우리 집에 쌓인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토사에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날 쏟아진 폭우로 강현마을 65세대 전부가 수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 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쳐버렸다. 피해상황을 집계하는 것도 며칠이나 걸렸다. 농강리 이장 김홍범 어르신이 마을 곳곳을 부리나케 돌아다니면서 피해상황을 집계한 덕분에 그나마도 할 수 있었다. 강현마을에서는 최영성 어르신 맥과 정기순 어르신 맥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도로는 중장비가 와서 치우면 되고, 농사는 어차피 올해는 틀렸으니까 천천히 치우면 되는데, 두 어르신 맥은 중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그 많은 토사를 손으로 치울 수도 없잖아요. 시내 아들네 집에 가 계신 정기순 어르신은 수해복구를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글썽 면장님이 서울에서 누가 왔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충주시 엄정면사무소의 소개로 강현마을에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긴급하게 일정을 정하고 인원을 모집했는데 8월 9일 단 하루 만에 청년 28명이 자원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수해복구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



강현마을 최영성, 김영석 어르신 부부와 수해복구 긴급구호팀.

고 싶어 했지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구호팀원들이 지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4명씩 2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 첫 번째 팀이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현마을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여름휴가와 말년휴가를 수해복구 긴급구호로 쓴 청년들

최영성 어르신은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원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고 기분이 좋다. 과연 누가 이 고되고 어려운 일을 저렇게나 성심성의껏 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입가에 미소가 걸릴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인부 4명을 불러서 토사를 치우려고 해봤는데 도무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자원해서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렇게나 성심성의껏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맺히고, 얼마나 습한지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땀이 아무리 쏟아져도 삼을 잡았다. 삽질이 익숙하지 않아서 두 배는 더 힘들었는데도 누구 하나 힘들다 불평하거나 못 하겠다 포기하지 않았다.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에 동참한 조성수 장로(NGO 더멋진세상, SNS공동체 멘토)는 수해피해 현장에 와서 최영성 어르신 맥에 쌓인 토사를 보고 아찔했었다.

“토사가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3일 동안 죽었구나 싶더라고요(웃음). 온누리교회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수해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식 형제(여호수아공동체)는 여름휴가를 내고 수해복구 긴급구호에 참가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크고 깊은 뿌듯함을 느꼈다.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원을 모집하는 영상에서 어르신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고 꼭 참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백화평 청년(허브공동체)은 그 소중한 말년휴가 중에 수해복구 긴급구호에 참가했다.

“군 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년휴가 기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자원했습니다. 또 군인의 주특기가 삽질 아님니까(웃음).”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이 굵은 땀방울을 흘릴 수록 수해 피해를 입은 마을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혹시 또 많은 비가 오면 피해가 생길지 몰라 배수로 정비도 했다. 최영성 어르신 맥 외벽을 가득 메웠던 토사가 사라지고 아궁이

가 본래 모습을 되찾았고, 갯벌을 연상시키던 마당도 맑아졌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장 성광제 집사(양천공동체)도 청년들과 함께 했다. 성 집사는 농촌에서 자란 덕분에 경운기를 운전할 줄 알았는데 이번 수해복구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성 집사는 최영성, 김영석 어르신 부부가 꼭 돌아가신 부모님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다는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다.

“수해를 입으신 어르신들이 꼭 저희 부모님 같아서 수해복구 긴급구호에 참가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신지 7년 됐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수해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을 미약하나마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최영성 어르신은 자식 같은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에게만 그 힘든 일을 맡겨 줄 수 없다면서 3일 내내 함께 복구작업을 하겠다. 집 뒤에 잔뜩 쌓였던 토사가 드디어 바닥을 보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소”

수해복구 긴급구호 2차팀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 정기순 어르신 맥을 복구할 예정이다. 정기순 어르신은 집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청주시내에 있는 자녀 집에서 머물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수해복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정기순 어르신의 자녀 최돈희 씨가 온누리교회 수해복구 긴급구호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 1차 수해복구 긴급구호팀 명단

최대홍 목사(여호수아공동체), 신동혁 전도사(SNS공동체), 이호영 형제(갈렘공동체), 백화평 형제(허브공동체), 김건 형제(허브공동체), 김범준 형제(허브공동체), 김형진 형제(허브공동체), 도영석 형제(허브공동체), 김동권 형제(허브공동체), 김지식 형제(여호수아공동체), 정세준 형제(SNS공동체), 정환웅 형제(SNS공동체), 구지민 형제(CHPLUS공동체), 허양기 형제(CHPLUS공동체), 조성수 장로(NGO 더멋진세상), 성광제 집사(NGO 더멋진세상), 최진혁 실장(NGO 더멋진세상), 김경미 PM(NGO 더멋진세상)

코로나19의 역설

이제야 보이는 ‘작은 모퉁이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줘준 이웃사랑 기획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엇 하나 이로울 것 없어 보이는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인간의 발길이 끊기자 회복되는 지구를 목격하면서 환경문제를 생각하게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다.

본지에서는 ‘코로나19의 역설’을 주제로 코로나19가 안겨준 숙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 두 번째 순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모퉁이’다. 작은 모퉁이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자막을 틀면 되지 않냐.”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 브리핑에 대한 한 네티즌의 항의 글이다. 정부 당국자 옆에서 브리핑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는 수어통역사의 움직임이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였다. 이처럼 일부 네티즌들은 수어통역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자막을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현상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는 가장 핵심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비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목소리와 몸짓과 똑같다.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와 억양, 표정, 행동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 역시 표정을 포함한 수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달 받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들이 전염병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 재난에 관한 위험도를 수어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 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뉴스 속 수어통역사의 위치는 대부분 TV 화면 속 가장 작은 모퉁이였다. 잘 보이지 않는 화면 구석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청각장애인들이 그 정보를 전달 받았다. 수어통역사들의 위치가 뉴스 브리핑룸으로 옮겨진 것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수어통역사들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수어통역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청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였다. 이제껏 잘 보이지 않던 작은 모퉁이가 비로소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 지난 8월 10일(월) 국회 소통관에 수어통역사가 처음으로 배치됐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정치 현안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작은 모퉁이 속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바로 장애인들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그를 돌보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 스트레스와 고립 등이 그 원인이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재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설움을 겪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하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1,585명 중에서 87.8%가 “코로나19에 따른 고립으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고립으로 인해 장애인과 그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다. 돌봄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건강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73.7%나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이 또 있다. 독거노인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동시에 지원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에는 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노인정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으며 무료한 일상을 달래곤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문을 닫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까지 총 11만537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73.5%(8만1,279개)가 문을 닫았다. 사실상 독거노인들이 고립 상태에 처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인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우울증’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자 3,982명 중 정상 1,842명(46.3%), 가벼운 우울감 1,843명(46.3%), 중증 우울감 297명(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노인 중 53.8%가 우울감 증세를 보인 것이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외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정말 많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배를 곯고 있는 노숙인들, 마스크 한 장 구입하는 일도 버거운 이주근로자들, 집에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이 용산역 노숙인들에게 먹거리와 마스크, 생필품 등을 선물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들 등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 잘 몰랐던 이웃들의 아픔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혜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내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준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발 빠르게 코로나19가 우리 손에 쥐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잊지 않고 보살피며 꼭 필요한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여 동안 독거노인들에게 ‘긴급반찬서비스’를 제공했다. 긴급반찬서비스는 코로나19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포장해서 배달하는 사역이다. 이웃사랑팀은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담근 김치와 간단한 밑반찬, 간편 조리식품 등을 전달했다. 2주에 한 번씩 먹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배달한 이웃사랑팀을

독거노인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배움의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사역’을 실시했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대일제자양육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예배처소 문을 닫아야 했고, 쪽방촌 주민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사역마저 멈출 수는 없어서 기도 끝에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사역을 떠올렸고 매주 전달했다.

수원 온누리교회 이윤학 집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이주민들을 위해 평택M센터에 마스크 100여 장을 기부했고,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등대교회 노숙인 성도들에게 옷가지와 생필품을, W공동체 청년들은 미혼모 시설 애란원에 분유와 생필품을,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은 용산역 노숙인들에게 마스크와 면도기, 먹거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선물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은 누구에게나 위협적이지만 그 공포와 고통을 배로 겪는 이들이 분명 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미혼모, 이주민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소외된 이웃들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결코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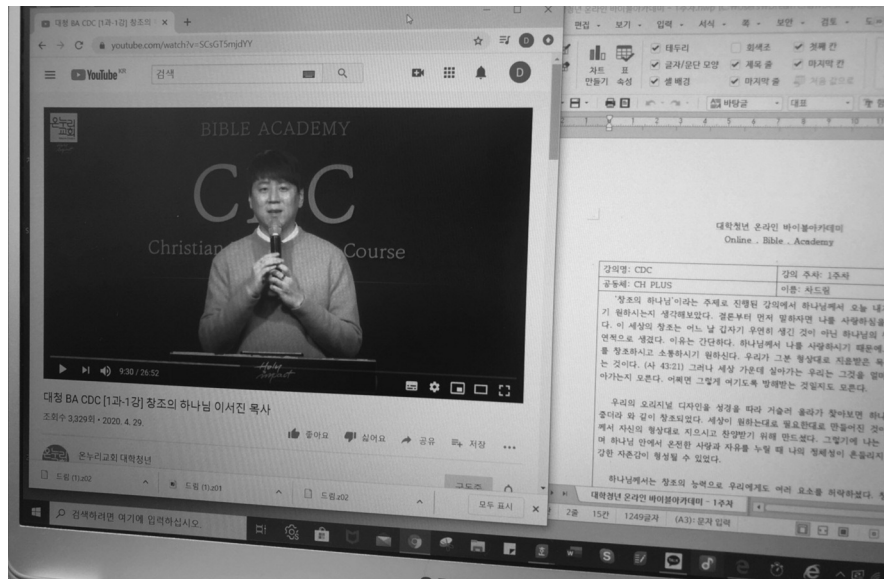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목사님, 저 CDC는 듣고 싶는데 순장은 안 할 거예요!”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신청자 면담에서 제일 처음 튀어나온 말이다. 그해 정말로 바이블 아카데미 CDC 수강만 하고 수료는 안 한 채 시간이 흘렀는데 올해 갑자기 순장님이 FA 훈련을 떠남과 동시에 내가 열렬결에 순장이 되었다. 그렇게 나의 CDC 재수(?)가 시작되었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경험했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영역들이 나만의 착각이라고 비웃기라도 하듯 나의 삶 곳곳에 코로나19로 비롯된 여러 가지 광야들이 찾아왔다. 그와 맞물리며 바이블 아카데미 CDC 수강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에 필요한 것은 그에 따른 준비가 아니던가.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기다렸다는 듯이 매주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키셨다. 그로 인해 예전의 나라면 쉽게 무너졌을 영역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부여주셨다.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꼈다.

매일의 큐티와 기도시간, 예배와 섬김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또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은



차드림 자매는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수강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아는 만큼 익숙해진 말씀과 신앙생활 가운데 바이블 아카데미 CDC를 통해 다시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패부를 찌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며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 다시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회개가 되는 것이 참 많았다. 십자가의 영광에는 동참하고 싶으면서 고난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에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며, 훈련의 길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았다. 앞서 고백했듯 CDC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순장 자리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도 전적

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는 또 다른 큰 은혜임을 고백한다.

바이블 아카데미와 함께하며 나의 시선이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토대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의 씨앗을 통해 복음과 은사의 열매들을 더욱 사모하며, 이제까지 행하였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더하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무소부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더불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강의를 열어주신 온누리교회와 대학청년부 모든 손길에도 감사 드린다.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든 것이 온전한 주님의 때에 협력하여 선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 차드림 자매(CH PLUS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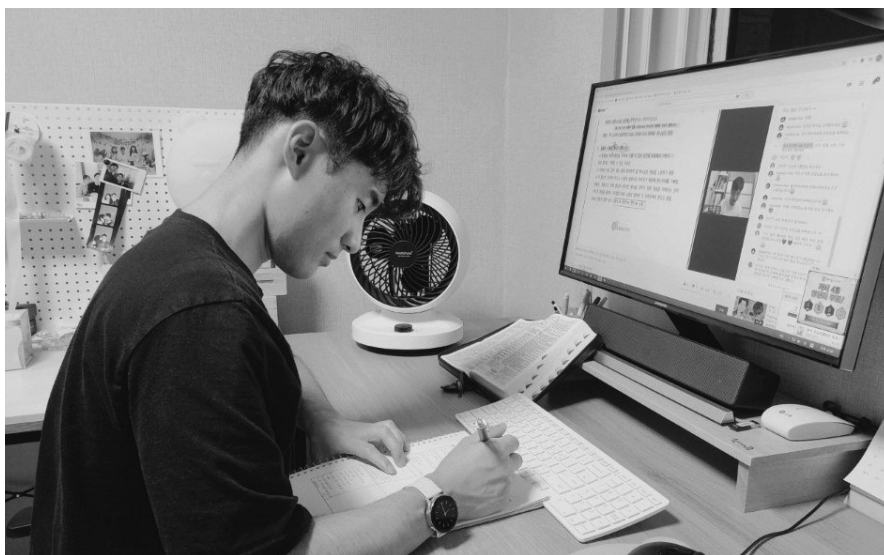
“영재 순장님! 이번에 CDC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어느 날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바이블 아카데미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를 권유하는 전화였다. 처음 바이블 아카데미 CDC를 듣기로 선택한 건 큰 영적 갈망이 있어서도, 넘치는 은혜 안에서 살아서도 아니었다. 홀리스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순원들에게 더 좋은 말씀들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편할 줄 알았던 바이블 아카데미 CDC는 내 예상과 달랐다. 여전히 홀리스타를 해야 했고, 바이블 아카데미 CDC 자체만으로도 큐티, 과제, 강의들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다. 매일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이직준비로 새벽 1~2시까지 공부하며, LTC에 CDC까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줄도 모르게 흘러갔다.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와 겹친 바이블 아카데미 CDC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기도 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포기하고 싶고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의 인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강의를 듣고 있는 성영재 형제.

도하심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바이블 아카데미 CDC를 수강하는 동안 잠을 많이 자지는 못했지만 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였고,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

‘정직하게, 꾸밈없이, 진실 되게, 매순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다. 너무 쉽게 내뱉었던 기도들과 순종의 고백들이 떠올랐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못한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도 낙담하게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

드로를 향해 세 번의 물으심과 세 번의 고백으로 치유해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8주 동안 바이블 아카데미 CDC 강의와 홀리스타, 큐티는 어느새 변해버린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첫 마음을 되찾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큰 기대감 없이 홀리스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적인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산 없이 사랑하고, 계산 없이 순종하며, 계산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어렵고 바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 같다. 바이블 아카데미 CDC를 수료한 지금 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도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첫 마음을 되찾아 ‘정직하게, 꾸밈없이, 진실 되게, 매순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엘리트가 아니라 바보라 또 첫 마음을 잊어 버릴 때가 오겠지만, 그때가 오면 다시 인도하실 선한 하나님을 신뢰한다.

“GOD is good All the Time”(하나님은 언제나 나 선하십니다). / 성영재 형제(J4U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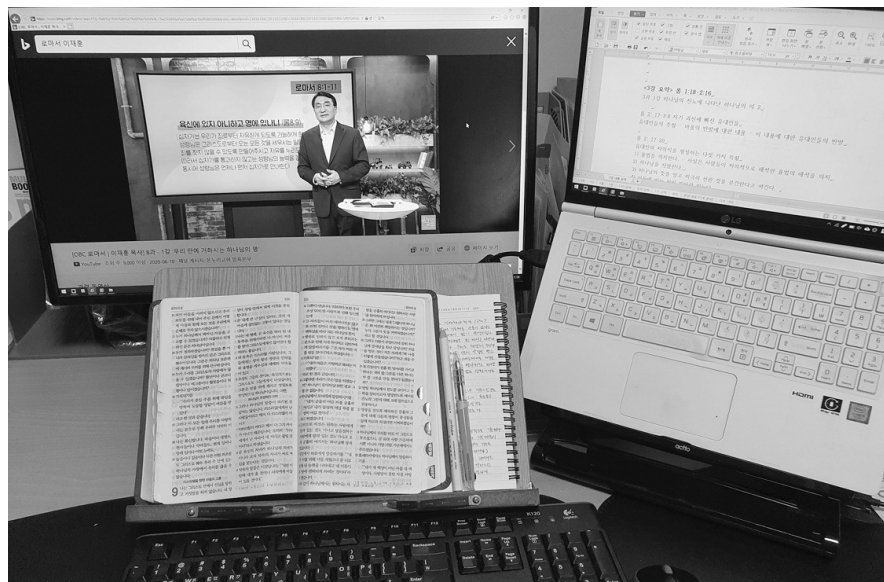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코로나19로 인해 대외활동이나 교회 활동이 어려워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 신앙을 더욱 단련하고자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매주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삶과 신앙 전반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들로 보냈다. 때로는 일상의 주어진 일들로 인해 매주 강의 듣기가 힘들 때도 있었고, 과제가 밀릴 때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바울의 가르침과 담임목사님의 훌륭한 강의는 매년 도전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큼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도이자 이방인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주권,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 태도와 함께 선교적 관점과 비전을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받을 때는 로마서를 여러 번 통독해야 했고, 8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했다. 그때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로마서일까, 암송은 왜 8장일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종체적인 신앙인의 삶, 사역의 삶을 깨닫고 순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윤희 성도가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다.

올해 들어 유난히 자기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의 귀중한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승리케 하신 능력, 칭의의 은혜에 더욱 은혜를 받았고, 다시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가 시작된 듯하다. 그동안 인생을 바쁘게만 살아왔지 제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니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일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긴 삶을 산 것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것일까 등 여러 질문들에 자책을 많이하면서 점점 마음과 생각, 영이 약해지는 것을 느

낄 수 있었다. 그런 중에 이번 학기 수강한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걱정, 염려, 후회, 연민 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 과거 일에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얹매어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앞으로 후회할 일을 더 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번 학기는 개인적으로 내적 갈등과 심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탄에 의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흔들릴 때도 많았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귀한 말씀이 삶에서도 보배롭게 드러날 수 있게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해본다. 한 학기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 최윤희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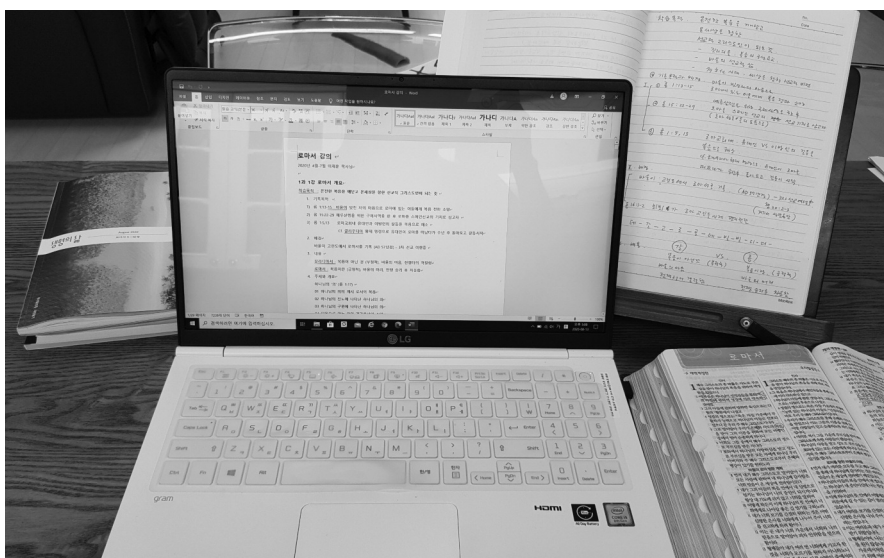
온라인 OBC 로마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 수업은 지난 10여 년의 신앙생활 동안 중심이 없었던 내면의 교리를 바로 세울 기회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마서 1과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목표인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간 수업이었다. 열네 번에 걸친 수업 내내 마음에 남는 주제가 ‘하나님의 의’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다르다는 일반적 생각 외에 깊이 묵상한 적이 없었던지라 그 이해가 부족했었다. 첫 시간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의 결과로서의 소망’,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의’까지 하나님의 참 본질을 느끼고 깨달았다.

열네 번의 수업을 빠지지 않고 노트필기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지만 석 달이 넘는 수업기간으로 인해 중간에 마음과 열의가 약해졌다. 그래서 종강 후 필기 내용을 총 29쪽으로 컴퓨터로 새로 정리하며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다 잡기 위해 노력했다.



김미경 성도가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 노트필기를 노트북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파송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는 나와 무관하게 문자로만 존재했었다.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이해하는 척, 믿는 척해야 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평안을 얻었지만 신은 늘 어려울 때

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일 뿐,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선악의 판단기준이 되어 나와 남을 정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영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오래 인내하시고 성실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번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말씀을 능력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를 통해 경험한 실제적 능력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이전에는 죄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 분노하고 판단하며 또 그런 나를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었었는데, 이제는 내안의 남은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와 분리되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번 수업의 가장 큰 은혜였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이 끝난 지금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의를 향후 일대일제자 양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다시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됐다. 그것이 이번 로마서 학습목표의 충실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

/ 김미경 성도(양천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그리움은 하나입니다”

한일연합 선교문화 크리에이터 ‘TriBE’



오사카 온누리교회 출신의 TriBE 멤버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임스(창대교회), 이지연(일본어예배), 이태우(오사카), 이시온(오사카), 우에무라 소리(오사카), 김세환(일본어예배), 모룡(평안교회).

지난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갈등이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서로의 빗장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한일관계로 인해 일본 선교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본 선교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들이 있다. 바로 한일연합 선교문화 크리에이터팀 ‘TriBE’ (이하 TriBE)다. 이지연(서빙고 일본어예배), 제임스(창대교회), 김세환(서빙고 일본어예배), 모룡(평안교회), 이시온(오사카 온누리교회), 이태우(오사카 온누리교회), 우에무라 소리(오사카 온누리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도, 국적도, 현재 있는 곳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오사카 온누리교회 출신이라는 것이다.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일본 선교와 크리스천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선교문화 크리에이터’입니다. 팀이름 TriBE(트라이브=3BE)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크리스천(to BE a real Christian)’, 둘째, ‘주의 자녀(to BE His Child)’, 셋째, ‘한일 양국의 다리가 되다(to BE a Bridge)’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팀원 중에서 4명이 한국, 3명이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버추얼 연주’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버추얼 연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나온 언택트 연주방법이다. 각자의 방에서 자신의 파트를 연주한 영상을 이어 붙여 동시 재생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버추얼 퍼포먼스’라고 불린다. TriBE를 결성한 주역 멤버인 이지연 성도는 온누리교회 예배본부 소속 메인건반 반주자였다. 그녀는 1년 11개월 동안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올해 1월 귀국했다. 자신의 장기를 충분히 살려 예배 반주사역 및 공동체 사역을 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금요예배사역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잘 몰랐는데 일본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를 확인해야 하고, 반주도 해야 하고, 인도도 해야 해서 긴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2년 가까이

금요예배를 섬기면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1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이들이 너무 그리고 보고 싶었다.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문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어느 날 일본 오케스트라의 버추얼 연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사카 온누리교회 금요예배팀에서 함께 했던 멤버들에게 ‘우리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TriBE의 찬양 영상이 지난 6월부터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다. 연습도, 녹음도, 편집도 모두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즐거움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온라인이지만 매주 서로 만나면 그렇게 좋습니다. 비록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어도, TriBE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유일한 예배와 선교를 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말씀은 지혜, 삶의 기준, 가치관

“말씀은 하나님입니다”(요 1:1).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를 듣기 전에 “성경탐구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강의 첫날 얻을 수 있었다. 첫 강의 시간에 주신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었다. “성경탐구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기대로 채우기 시작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은 집을 건축하는 방식처럼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설계도면을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그 안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덮는 등의 일련의 과정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깊게 공부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삶 속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었다.

성경탐구가 집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라면, QT는 그 집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뼈대가 잘 세워져 있다면 QT의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윤순 형제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강의를 듣고 있다.

단단한 뼈대를 세우기 위해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등에 이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까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보았다. 각 시대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인지, 말씀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등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

성경탐구 40일 과정이 끝난 지금 나는 무엇이 바뀌었을까? 먼저 하나님 말씀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됐다. 단순

한 문자를 넘어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지리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까지 떠올리며 말씀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이전보다 쉽게 다가오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내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마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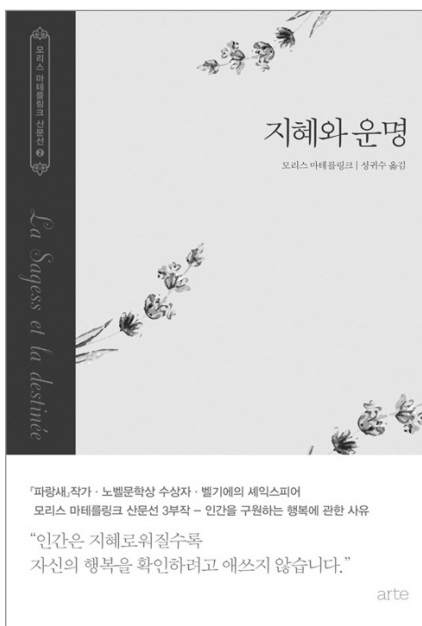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도 경험하고 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들으며 좋은 습관도 하나 생겼다.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쉽고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며 평안을 선물 받고 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여호수아공동체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윤순 형제(여호수아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우리 모두 지혜를 갈망하자



지혜와 운명

모리스 마테를링크 저 | 아르테 | 14,000원

이 책은 벨기에 출신으로 <파랑새>라는 희곡을 썼고 벨기에 역사상 노벨문학상을 유일하게 수상한 시인이자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물안개 가득한 새벽 호숫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경지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현자 없는 세상에서 현자를 만난 설렘과

더불어 그 현자와 함께 영적인 경지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칼럼을 읽는 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현실로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또 각박한 삶에서 따뜻한 지혜의 위로로 인해 아름다운 감성을 재충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망설이지 말고 서점에 들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 같은 문장 하나하나와 깊이 교제해 보시기를 권한다.

작가는 이 책에서 지혜는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보다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갈망과도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혜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세상은 지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착오이며 착각이다. 왜냐면 지혜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바라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혜는 배움의 결과 아니라 바라봄의 결과이다.

지혜와 지식은 어떤 간극이 있나? 예수님과 소크라테스가 간통한 여인과 마주했다고 가정해 보자! 소크라테스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자들은 여인에게 모두가 동일한 수치의 문제를 지적할 테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정의를 넘어서 선의를 낳을 수 있고, 그 지혜는 고로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지혜는 사물을 바라보는 힘이고, 사물을 유지하는 힘이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시각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지혜는 이성의 꽃이 아니라, 사랑의 화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얼마나 공감이 되고 멋진 말인가? 그렇다. 현명한 사람은 멀리 내다볼 뿐 아니라, 동시에 깊이 사랑하고 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 없이 본다는 것은 어둠을 더듬는 것과 같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도전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위대한 발견을 앞둔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전 존재를 열어 그 발견을 끌어안을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묵상을 해보았다. 첫째, 지혜는 ‘나를 바라보는 태도’다. 행복은 나의 전 존재를 힘껏 안을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지 않고 내 생명 안에서 존재한다.

둘째, 지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장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 확장은 오로지 나의 존재를 축소함을 통해서만 온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에서 확장되려거든 축소의 영성,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지혜는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만

으로는 영혼에 날개를 달 순 없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접촉하시므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결국 가장 신적인 모습이 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람이신 예수님의 소통과 섬김을 닮아갈 때 비로소 날개를 달 수 있다.

넷째, 지혜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건축자처럼 살아가는 태도’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환멸, 회한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에 좌절하기보다 그 폐기물 같은 것 속에서 아무지게 단련된 벽돌을 골라내자! 그리고 그것을 건축자재로 삼을 때 세상 어떤 환멸, 회한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책은 200페이지 남짓 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책이 주는 감동에 읽기를 멈추고 묵상해야 하는 시간은 수백 번이 넘을 만큼 많은 인사이트(Insight)를 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짧은 지면에 어리석은 자가 쓴 소개를 보고 이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혜는 생명을 움직이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모두 지혜를 갈망하자.



임용성 목사
(서산 온누리교회)

넷플릭스(NETFLIX)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화

믿음으로 난관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



오버커머(Overco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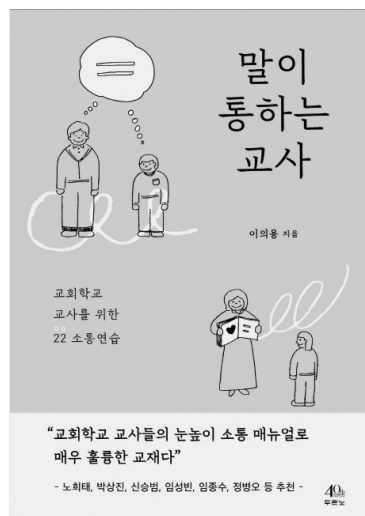
이 영화는 천식을 앓는 크로스컨트리 선수, 딸을 버리고 떠난 아빠, 갑자기 크로스컨트리 코치가 된 농구팀 코치의 믿음을 담았다. ‘승리자’, ‘난관을 극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오버커머(Overcomer)’라는 제목처럼 믿음으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다.

영화는 고등학교 농구팀 코치 존 해리슨이 갑자기 크로스컨트리 코치가 되면서 시작된다. 마을의 큰 공장이 철수하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빠져나갔고, 지역대회 준우승까지 차지한 농구팀도 해체됐다. 존 해리슨은 교장의 권유로 크로스컨트리팀 코치가 됐는데 선수라고는 천식을 앓는 해나 스콧뿐이었다. 소질은 있지만 천식을 앓는 해나 스콧을 어떻게 돌보아 할지 몰랐던 존 해리슨은 심방을 간 병원에서 전 크로스컨트리 선수 토마스 힐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토마스 힐은 죽은 줄만 알았던 해나 스콧의 아버지였다. 해나 스콧은 교장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용서한다. 15년 만에 재회한 부녀는 신앙과 크로스컨트리를 통해 회복된다.

오버커머(Overcomer)는 감독과 존 해리슨역을 맡은 알렉스 켄드릭과 제작진이 에베소서에서 감동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초신자나 전도대상자들과 함께 보기 정말 좋은 영화다.

두란노 신간

차세대와 말이 통하는 22가지 방법



《말이 통하는 교사》

이의용 저 | 두란노 | 10,000원

“교사들에게 열심히 강요하지 말고 가르치는 방법도 가르치자!”

《말이 통하는 교사》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 미디어의 발달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다음 세대의 특징과 관심사, 소통하는 방법, 상담 방법, 교육 도구 등 교회학교 교사들이 공부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22가지 소통 매뉴얼을 소개한다.

‘카페인 세대’가 무엇일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는 요즘 아이들을 뜻한다. 이 세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자. 심중팔구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저자는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페인 세대는 글이나 말보다 사진, 영상, 이모티콘, 채팅을 통한 표현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무엇보다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결한 말을 사용하고, 아이들

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보다는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게 좋다고 권한다. 일단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말이 통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도우심 구하고, 뜻 모아, 혼란 돌파하자”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및 출범식



지난 12일 열린 한국교회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최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및 출범식’이 지난 12일(수) 오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교총은 한국 교회 교단과 연합기관, 전국 기독교 연합단체 등이 함께하는 ‘한국교회기도회’를 출범하고,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기관 대표, 주요 교단 임원,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수석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사회, 전용태 장로(진평연 상임대표) 기도, 김태영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설교, 음선희 교수(홍익대 법대) 발제, 릴레이 기도, 출범식, 각 기관 대표 및 국회의원 인사, 폐회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기도회 선언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범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기도회를 전국 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태영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를 위한 치유와 상담센터, 사회적 약자 돌봄 기관을 설립해서 해당 법에 유보적인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도록 양면을 보듬어 가자”고 권면했다.

한국교회기도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번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이고 나쁜 법을 막는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 세계의 본이 되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회기도회는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기도회는 오는 9월 16일(수) 오전 7시 서대문교회에서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00선교 IT분야 재능기부자 모집

IT 서비스 기획자, 웹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등

2000선교본부에서 새로운 선교플랫폼 기획과 설계, 개발을 위한 IT분야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IT 서비스 기획자 1~2명, 웹디자이너 2~3명, 웹 퍼블리셔 2~3명,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2~3명(Linux 기반 Cloud환경 개발), 데이터베이스 1명, 앱 개발(안드로이드, 아이폰) 2~3명이다.

2000선교본부 새로운 선교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현장을 돕기 위한 사역이다. 새롭게 구축하는 선

교플랫폼은 웹을 기반으로 현지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새로운 선교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능기부자 검색 및 필요한 재능기부 내용 게시, 온라인 아웃리치(비대면 상황에서 선교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온라인 마켓(선교본부에서 후원받은 물품의 등록과 재고관리, 해당 물품에 대한 제공 신청 등) 등이다.

문의: 02-3215-3211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

CGNTV 및 군선교팀, 군종목사 교육 및 장비지원

지난 11일 CGNTV와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용산국군중앙교회에서 열린 교육에는 육해공군 군종목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대면) 사역이 어려운 군교회를 위해 온라인 방송장비 지원과 활용법을 알렸다.

CGNTV가 미디어 제작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라이브러리 활용방법을 소개했고, 김태훈 목사(총회 교육국)가 ‘코로나19 시대 목회 패러다임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이날 교육에 참여한 50여 개 군교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등 50만 원 상당 장비를 지원한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상황이 어렵지만 군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군종목사들이 수많은 장병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격려했다. 육군군종목사단장 배동훈 목사(육군 대령)는 “온누리교회와 CGNTV의 후원 덕분에 군선교가 힘을 얻는다”고 인사했다. 조영신 목사(30사단 91여단)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이었고, 양질의 예배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창조과학스쿨,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8월 30일, 9월 7일부터 온라인(Zoom) 강의

창조과학스쿨과 창조신앙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창조과학스쿨은 8월 30일(일)부터 9월 27일(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강의(Zoom)로 진행된다. 대홍수 격변모델과 판구조론, 대홍수의 기념비 그랜드캐니언과 생생한 격변의 현장, 거대 우주와 우주의 연대, 생명의 설계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수강신청은 9월 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창조신앙스쿨은 9월 7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강의(Zoom)로 개강한다.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노아홍수 사건과 화석과 지층, 기원의 문제 및 진화론 바로알기, 지구와 우주, 패러다임과 영적전쟁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교재 및 필독서 별도 구매).

문의: 010-4658-0987(창조과학스쿨) 010-7292-2349(창조신앙스쿨)

2020 KCAF 정기전 ‘비추소서’

온누리아트비전이 주관하는 2020년 KCAF(Korea Christian Art Feast) 정기전 ‘비추소서’가 온라인 전시 및 오프라인 소품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네이버(kcafmodooat)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KCAF2020) 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소품전은 9월 8일(화)까지 카루스 갤러리(경기도 하남시 강북로 81-13)에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이번 정기전 ‘비추소서’에서는 온누리아트비전을 비롯해서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동안교회미술인선교회, 백석대학원기독교미술선교회, 사랑의교회미술인선교회 등 9개 미술인선교회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MGO더멋진세상, 남수단 코로나19 긴급구호

캐세리 마을 100가정과 지역교회 식료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다. 소외된 지역인 캐세리 마을 100가정과 오순절교단교회, 성공회교회 등 지역교회에 옥수수 2천kg, 콩 2백kg, 기름 1백kg, 설탕 4백kg, 소금 1백kg, 비누 400개, 우유

가루 25kg을 지원했다.

이번 남수단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은 정은희 선교사(GMS 파송)와 협력해서 진행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남수단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준비 중이다.

온누리교회 한식당 가격 인상

9월 1일부터 4천 원

온누리교회 한식당 가격이 인상된다. 9월 1일부터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온누리선교재단측은 “식재료 및 인건비 상승

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등으로 인해 한식당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가격이 인상된 만큼 더 질 좋은 음식으로 성도님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모집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공사현장 관리·감독관이다. 대상은 건축 관련 자격 및 현장관리 경험(20년 이상 우대)이 있는 자로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을 우대한다. 이력서(경력포함)와 자기소개서를 구비해 이메일(ij0702@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143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선교사



이장로 장로
(여의도공동체,
한국리더십학교장)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직업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목회자, 신부, 선교사 등 성직(聖職)이라고 부르는 직업 말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

는 이것과 생각이 달랐다.

직업과 소명의 관계

신약성경에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칼레오(kaleo)’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소환(calling)을 의미한다(롬 8:30, 고전 1:9). 또한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부르심도 포함된다(벧전 2:9).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부르심’이란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Beruf)’로 번역해서 소명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던 중세 교회에 도전했다. 당시 중세교회는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회를 위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직무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했다. 수도사와 신부, 수녀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흔히 이를 ‘신령한 직분’이라고 불렀으며 그 밖의 일은 천박하지만 ‘세속적 직분’으로 보았다. 그런 중세교회의 견해를 루터는 아래와 같이 공격했다.

“교회,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적 직분’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소리다. 철저한 기만이고,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세례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드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 2:9), 묵시록은 이렇게 가르친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계 5:9-10).”

이와 같은 루터의 소명에 대한 해석과 만민 제사장직 주장은 당시 중세교회의 이층구조적 계층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에서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이신칭의(구원)받고 세례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존전에서 모두 하나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보내며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님의 자녀들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 따라서 첫째, 성직 계층이 평신도 국가 공직자들보다 우월할 수 없고, 둘째,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며, 셋째, 평신도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두 가지 성례(세례, 성만찬)만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면서 평신도들까지도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 수 있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했다. ‘기독교자의 자유’에서는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모든 평신도는 사제계층의 중재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꾼의 소명과 태도

모든 직업은 소명이고, 성직과 세속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은 일꾼일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수단도 선택해야 한다. 성경은 일하는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첫째, 일이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창 1:26-28).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직장인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공급하는 일꾼이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할 물품을 만드는 것처럼 일한다면 그 생산물은 분명히 고객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둘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직장인은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골 3:22-4:1). 또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골 3:17).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일하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겸손과 온유로 일하게 되고 최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일터에서 사람을 섬겨야 한다(막 10:42-45).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권세를 부리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같이 섬기라고 하셨다. 특히 까다로운 상사들을 만나면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넷째, 희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다. 희생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일터와 가정과 매일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 때 리더십이 생긴다.

다섯째, 여러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고전 12:4-8). 일터는 유기적 공동체다. 여러 사람이 각자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천부적인 재능과 영적 은사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터에 들어가면 그 일터의 목적, 가치 및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탁월성을 갖춘다면 더욱 좋

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혼자 유기체를 이룰 수 없다.

여섯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때로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이때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화가 난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3-24절에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려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일터로 보냄 받은 일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선교사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눅 4:43).

‘보내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아포스텔로’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임무를 맡겨 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본래 왕이 신하를 파견할 때 썼던 단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냄 받은 자로 인식하셨다는 것이다(눅 4:18, 요 3:17, 4:34, 5:24, 17:3). 이 아포스텔로의 라틴어 번역이 ‘미토(mitto)’이며, 여기서 오늘의 ‘선교(mission)’란 말이 나왔다.

이런 뜻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최초의 하나님 나라 선교사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시며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요 17:18, 20:21)고 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특수 임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보냄 받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매우 다양하다. 그 곳은 가정, 교회, 회사, 사회 또는 정부일 수 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가정이 일터고, 전임 목회자의 경우는 교회가 일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이다. 따라서 나는 일터로 보냄 받은 일꾼이다. 예수님은 왜 나를 일터로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어느 재소자의 간증



/ 김민음 재소자(소망교도소)

사랑하는 신동식 목사님께.
긴장과 혼돈 속에 무사히 자격증 시험을 치렀습니다. 평소 연습하던 대로 시험에 임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무미건조한 징역생활 속에 자격증 취득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집니다.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고군분투했던 정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각 본소로 떠남만을 남겨둔 채 그간의 고생 많았음을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장마라 하더니 자주 비가 내립니다. 밤새 내린 비는 오후 시간인 지금 이 시간에도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빗속에 난간 위에 다수의 산비둘기들이 모여 앉아 한쪽 날개를 번갈아가며 하늘 높이 쳐들고 몸을 비스듬히 눕혀 온몸으로 비를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고 또 어찌 보면 지혜롭다고도 느껴집니다. 말 못하는 저 미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뉘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갇혀 지내는 이 죄인은 지난 날 부질없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고 신기루 같은 꿈만 쫓아 허우적거리며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후회하기에는 언제나 늦은 시간이라 여겨지지만, 앞으로 맞이할 나의 새로운 그날을 위해 매일 의미 있게 살고자 합니다. 무덤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귀하신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이니 무엇이든 잘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어 주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은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의 유흥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제 자신을 오늘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항상 동행하십니다. 소중하고 귀하신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죄인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목사님 위해 하루 두 번씩 드리는 기도시간에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날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前새사람사역팀 담당 신동식 목사(평택 온누리교회)에게 소망교도소 재소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수료 간증



/ 홍이진 성도(마포공동체)

이사 오기 전에 마음속에 훈련과정이 잘 갖춰진 온누리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남편은 집 가까운 교회가 좋다고 해서 계속 기도했다. 예배에 참석한 다음 온누리교회에 다녀야겠다고 결정했고, 새신자과정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일대일제자양육이 연결되었다.

새신자에게 성경공부가 쉽지 않음을 알고 남편을 돕기 위해 처음에는 성경도 찾아주고 애썼는데 금방 적응을 하고 암송도 잘하는 남편을 보면서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 또한 아들 양육으로 마음의 상처가 심했는데 양육자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진 것이다. 선박의 키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자아를 깨달았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삶의 왕좌에 자아를 두고 있었음을 알았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

진정한 제자의 삶

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들을 알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과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았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려면 이 모든 가르침에 순종으로 응해야 한다고 했다. 순종의 열매로써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었다. 머리만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웠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대일제자양육과정이 끝나갈 무렵 남편의 간증을 들었다. 양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귀하고 소중한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필요에 따라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맞춤으로 귀한 선물 주실 때마다 짝짝 놀라고 가슴이 떨려온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부지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입교 간증



/ 김현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

나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중학생 때 서울로 이사 오면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 사람들과 교제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다. 결국 예배당 문을 닫게 되었고, 나는 다른 교회를 찾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온누리교회로 옮겼다.

온누리교회 또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 등록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나를 위해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온누리교회로 옮겼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작년에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느꼈다. 또한 주님은 순예배를 통해 나보다 교회와 순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외할아버지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그 덕분에 나는 ‘감사’라는 단어를 더욱 묵상할 수 있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과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동안 당연시누렸던 수많은 것들의 감사를 깨닫게 하셨다. 특히 이단과 동성애를 들춰내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님이 싫어하는 이단과 이단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전 세계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물질의 마음을 주셨고, 그동안 외면했던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는 마음도 생겨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 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다.

온라인 창조신앙스쿨 간증



/ 김영수 성도(강남A공동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

어려서 진화론 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물리학을 공부하고 가르친 경력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창조신앙스쿨을 통해서 평소 알고 있던 창조에 관한 지식들이 더욱 견고해졌다.

사람들은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진화론이 더 타당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한다. 지난 5주 동안 강사님들께서 학교 교육과 일반 상식 등으로 막연히 받아들였던 진화론의 많은 부분이 허구와 조작 위에 있는 가설인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 창조과학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온 세상이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설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세상에 지어진 만물 뿐 아니라 인간도 물질적 존재로만 설명하려 한다. 창조신앙은 인간의 정체성을 진화론이 주장하는 물질과 동

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한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독특한 창조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 회복과 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는 자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단지 지식적이며 신앙적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 혼, 육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창조신앙스쿨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도와 목적에 의해 창조된 곳인지를 잘 설명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셔서 창조(사 40:22, 렘 10:12, 51:15)’하셨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우주가 더 잘 설명된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읽는 말씀을 쉽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셨다. 재미있는 콘텐츠와 퀴즈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신 총무님께도 감사하다.

장로칼럼

필사하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영철 장로
(성북공동체)

온누리교회에서 좋은 운동이 시작됐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필사를 할 수 있는 ‘에스라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나 역시 교회의 방침대로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순장님으로부터 시편 1편에서 4편까지를 배정 받았다. 두렵고 부담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필사본문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와 예배가 멀어져가고 있는 시점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말씀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에스라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일이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회에 감사할 따름이다.

기쁜 마음으로 필사지를 받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막상 필사를 시작하려니 문제가 있었다. 글씨가 마치 암호문인 듯 모양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수십 년을 컴퓨터 키보드로 손가락 운동만 했으니 필사력의 퇴보는 당연지사였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 글씨로 옮겨 적기 위해 다른 종이 여러 장을 꺼내 필사를 시작하기 전 글쓰기 연습도 했다. 그저 글씨를 옮겨 적는 일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필사를 시작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씩 옮겨 적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존전(尊前 Coram Deo)에 모심이어 하는 마음이 짐으로 기도하고, 세 번 읽고,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착실히 획을 그어갔다. 글 획을

놀이 쓸 때 마치 손도장을 만들 때처럼 예리한 칼로 글자 한 획을 파서 도장을 만들어 각인(刻印)하듯 필사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시편 150편 중 가장 유명하고 암송 외우기를 즐기는 장이 시편 23편과 시작인 1편이리라. 말씀을 적어나가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우리말성경으로 읽고 필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나 같은 구세대(?)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구절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우리말성경은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 없다고 해야 할까? 조금 싱겁다는 생각이 든다. 한문(漢文)세대의 열치기 영향이 남아있어 그런지도 모르겠다. 시편 1편 3절 말미에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亨通) 하리로다”인데 우리말 성경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라고 필사하니 조금 밋밋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만사형통(萬事亨通) 등 한문으로 유식한척 건방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시 잡아본다. 이런저런 마음들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필사하기를 정말 잘 했다. 필사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말씀은 뒤로 밀리고 고집 불통 내 주장이 앞서가는 늘그막에 말씀의 칼이 내 골수와 심장에 쏘아져진다. 말씀의 지혜로 날갯짓하고 기쁨부음으로 마음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히 4:12) 하셨으니 나는 운동력에 특히 기대해 본다. 운동력, 역동성, 기동성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독수리 날개 처 올라가듯 하면 얼마나 흥분되고 좋으랴! 그리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가사처럼 찬양하리라. 필사하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아멘.

권사칼럼

열국 어미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



이정원 권사
(경기A공동체)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 계속 소식을 주고받던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늘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빛을 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는 이 기회에 작은 마음이라도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섬김이지만, 이 작은 나눔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선교사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고민 끝에 열무김치, 만능양념장, 멸치볶음, 누룽지 등을 만들었다. 만든 음식들을 양손 가득 들고 버스를 3번씩 갈아타며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렸다. 선교사님들이 자가격리 중이라서 보고 싶은 얼굴도 못보고 준비해간 음식 보파리만 문 앞에 두고 오기도 했다.

선교사님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고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함께 섬겼던 스테플들에게 연락하셨다.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다. 선교지에서 주님게서 배워셨던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오셨는지, 그 일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선교지도 모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역시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해

여 고민하던 선교사님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게 되셨다고 한다. 상처의 응어리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매들이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 많은 자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전해주셨다. 해피맘을 함께하던 자매들이 자신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면서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기쁨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멈추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면서 다시 SNS로 모임을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과제를 하고 인증사진을 남기다 보니 말로 할 때보다 감격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고백하셨다. 또 시간을 정해 같은 시간에 현지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다. 중간 중간 인터넷이 끊기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화상미팅으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나기도 하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하셨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야기 끝은 같은 이야기들로 모아졌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헤쳐 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더 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거예요. 꼭 돌아갈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속히 이 환란의 시대가 지나가기를 바란다.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서 그런지 한국이 낯설다면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대해 잘 배우고 싶다는 선교사님들을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국의 어미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신앙에세이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엄마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안 변해?”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대표적 의문 중 하나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다. ‘설교와 강연을 열심히 듣고, 도서와 자료를 읽는 데도 왜 여전히 인격(인행)이 변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일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민에 휩싸인 사람에게 주는 대표적 답변은 이렇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10년 동안 정말로 ‘절끔의 변화’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라면 과연 이 말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롬 10:17)면 ‘들음의 영성’은 ‘인격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음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으며, 아무리 오랫동안 진리를 들어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는 한탄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들음’ 이외의 ‘또 다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로마서 2장 13절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2:13).

들음 이외의 추가로 필요한 노력은 행함의 영성이다.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계속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속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체로 설교나 강의를 들은 후 좋았다면 이렇게 반응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

문제는 그게 끝이라는 점이다. 은혜와 감명의 유효기간은 그 순간일 뿐이다. 정말 열심히 들으며 필기한다. 하지만 배운 내용이 필기한 노트에 갇혀 있다. 배운 지식이 머리(이해)나 마음(감동)에서 손발(행함)로 흘러가지 않는다.

설교는 설교자가 깨닫고 행한 내용이지 결코 청자(聽者)의 것이 아니다. 받은 감동으로 변화된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들은 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자신의 것이 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설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이 쏟아진다. 자신만의 자각과 통찰이 생긴다. 설교자와 다른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것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기도), 계속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을 밟고 있다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교는 실천의 시작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탄의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사탄은 교회

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차선책으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만족주의’에 빠뜨린다. 설교와 강의를 듣고 마음껏 감탄하게 놔둔다. 하지만 실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적용주의’로는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 설교와 지식의 홍수 시대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가랑비 비유’는 위로의 말이다. 수동적으로 계속 설교와 강연으로 채우기만 한다면 10년이 지나도 평생 변화가 없다. 설교를 들은 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보고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해보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엄마, 요즘 뭐 새로운 거 배우죠? 뭔가 달라졌어요.”

자녀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길 바란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서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한 변화다. 실제로 내가 살아본 지식만이 나의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빛진 자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가 말씀에서는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19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 희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종이었고, 죄의 빛 가운데 허덕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누리면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질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기초로 형성된 사회질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절반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을 기뻐하며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이 죄

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유를 사 옹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정하신 것, 혹은 하도록 정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고, 죄의 종이 되어 선택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마음은 많은 것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죄의 습관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중독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모든 상처와 죄악의 습관에 억눌려 있는 인간의 상태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멈출 수 있는가?, 그만 둘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중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면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결심, 지식, 경험, 물질로는 죄의 종 된 상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포로 된 자, 억눌린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어떤 사상적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분의 소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도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은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면서 그 주장만큼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명제를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그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영혼은 해야 할 많은 의무들이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듣고 믿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가 보낸 편지

“영혼구제까지 확장되도록 두 손 모아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Z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민음(가명)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5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봉헌해주신 비전헌금으로 저와 제가 있는 이곳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이 나라는 산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산을 감상하고, 정상에도 오르고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이곳은 산의 나라입니다. 주수입원이 관광업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자연경관을 가진 이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최빈국 중 하나일 정도로 가난합니다.

관광객들이 물밀 듯 밀려오던 때에도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이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상륙하자마자 강력한 국가봉쇄 정책을 취하면서 자국민들이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경봉쇄 정책이 시행된 지 2개월까지만 해도 이곳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타국에서 일하던 수많은 현지인들이 실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방 거점도시에서 현지 언어연수 마지막 6개월을 앞두고 국가봉쇄령이 발동되는 바람에 언어공부가 중단되었고, 빈민가

아동사역도 멈춰버렸습니다. 고조되는 코로나19 위기에 잠정 철수도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수많은 현지지역자들과 현지인들이 굶주림에 신음하는 것을 보고 고국으로의 철수를 보류하고 두 차례에 걸쳐 구제사역을 실행했습니다. 향후 5차까지 구제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구제사역 때 쌀 등 일용할 양식을 구입해서 현지지역자들을 통해 교인들과 빈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2차 구제사역 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빈민과 다른 지역 빈민가, 그리고 5명의 현지지역자들에게 예산을 배분해 각 지역 형편에 맞게 빈민구제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쌀과 국거리, 식용유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빈민가 가족들에게는 쌀과 닭고기, 연료가 떨어진 집에는 연료(가스통)를 지원했습니

다. 장기간 국가봉쇄 정책으로 온라인수업을 해야 하는 사역자 자녀들에게는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빈민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곧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제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참으로 큼니다. 더욱 뜻 깊은 일은 현지 지역 교회들을 통해 빈민구제사역을 진행하였기에 교회 부흥에도 일조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으로 이 일에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구제사역이 영혼을 구제하는 데까지 확장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 윤민음 선교사(Z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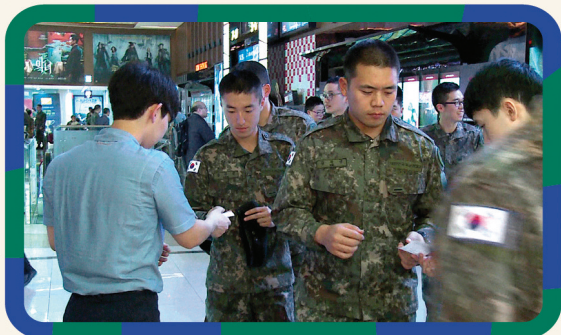


청년사역의 최전방, 군 선교 현장에 CGNTV가 함께합니다

군 선교 사역, 다음 세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선교 중단 위기에
군 복음화를 위해 CGNTV가 콘텐츠와 사역으로 함께합니다.



🎬 찾아가는 서서평 상영



총 **344**회의 상영회로 **173,303**명의 국군 장병이 CGNTV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했습니다.

📺 군종목사단 온라인 예배 교육



국군 장병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군종 목사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온누리군선교팀

CGNTV

